

自我 찾아 山寺로... 올 여름 템플스테이 떠나볼까

우울증 치료·집단 명상 등 사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름 템플스테이가 유명 사찰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활짝 열려 있다.

전남지역의 주요사찰들이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저소득층 어린이와 새터민을 위한 프로그램, 우울증 치료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등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조계종 4개 교구 본사는 각 사찰에서 하룻밤씩 머물며 대표적 선승들과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 사찰에서 머물

며 수행을 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각 사찰에서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약사암(백양사), 구층암(화엄사), 불일암(송광사), 일지암(대흥사) 등 각 사찰의 대표적 암자를 순례한다. 또 저녁예불 후에는 성오 스님(백양사 주지),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법흥 스님(송광사 원로위원장),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등 각 사찰을 대표하는 선승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참가비 40만원. 062-383-3538.

해남 미황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 미황사 여름 한문학당'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8월 3일, 8월 6~13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자소화, 명심보감 등 한



지난해 7월 대원사가 '나를 보게 하소서'를 주제로 마련한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공부는 물론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달마산 숲 체험을 하고 나무목걸이 만들기, 탁본체험, 별자리 탐방, 다도, 요가명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가비 25만원.

이밖에 한국 전통의 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참선 프로그램인 '참사랑의 향기'(7월 12~19일, 8월 16~23일)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휴식형 템플스테이인 '고요한 소리'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문의 061-535-2706.

초의선사와 차로 유명한 해남 대흥사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초의스님 선다일어'를 개

최한다. 4박5일 동안 참가자들은 초의스님이 지은 '동다송'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찻잎 따기, 차 우리기 등 다도체험을 한다. 참가비 20만원.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도 아카데미 수련회'(8월 12~17일)도 진행한다. 참가비 30만원. 061-534-5502.

완도 신흥사는 섬 투어 프로그램인 '섬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을 8월부터 수시로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고산 윤선도의 흔적이 있는 보길도와 서련제의 배경이 됐던 청산도를 방문한 뒤 도자 체험을 한다. 참가비 3만~5만원.

또 올해는 완도군의 후원을 받아

완도 일대 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1일까지 '섬 아기의 도시 원정기'를 진행, 서울도 방문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061-554-2634.

보성 대원사는 광주·전남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박2일 동안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으며, 8월 15~17일과 8월 22~24일에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집단 명상, 즉 몸체험, 웃음 요가 등을 체험해보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061-852-1755.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 칼럼



최광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서구세계와 이슬람 문화권,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근본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비단 러시아와 폴란드·프랑스·북미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다. 알제리·이집트·터키·파키스탄·인도·스리랑카 등 세계 도처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은 "우리는 바로 문명적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반문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문명충돌', 특히 이슬람문명과 서구문명 또한 국가·지역·마을·동료 간에 벌어지는 각종 문화·종교적 다툼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불교 종법사였던 정산종사는 '삼동윤리'(三同倫理)를 제시해 주었다.

인류의 보편윤리로서 삼동윤리

그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同源道理)는 모든 종교의 근본은 서로 통함을 알아야 한다는 종교 간의 윤리이다.

둘째, 동기연계(同氣連契)는 인종과 생명의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이므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인종 간·민족 간·생명 간의 윤리이다.

셋째, 동척사업(同拓事業)은 정치와 경제와 이념 간에는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합목적성으로 통함을 알아야 한다는 정치인간과 경제인과 이념 간의 윤리이다.

유엔교육사회문화기구(UNESCO)는 '21세기 보편윤리강령'을 만들어 전 세계 인류가 이를 지킴으로써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원불교 일원상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삼동윤리의 정신은 이러한 인류사적 작업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의 선인선, 악인악의 인과정인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말씀과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그를 존대하고 이해하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이해한다'라는 원불교 교전말씀 등은 곧 종교의 교훈에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남을 대하며,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종교를 믿건 안 믿건 지구상의 모든 남녀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 이같이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원불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무>

광주 불교종립학교 정광학원에 자비정신 함양 관음보살상 봉안

광주지역 불교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이사장 석천은 스님)이 22일 오전 10시 정광중·고등학교 불미동산에서 관세음보살성상(사진) 봉안 점안식을 갖는다.

관세음보살성상은 불교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백양사, 송광사 등 전남지역 주요 사찰과 동문들이 모두 2억원을 시주해 지어진 불상이다.

석천은 정광학원 이사장 스님은 "지역사회에 학교설립이념을 고취하고 자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성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겨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간이 배출되는 교육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전남지역 5개 종찰의 도움을



받아 불교교육을 통해 대중포교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1946년 설립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국인 55% “가족이 국제결혼하면 찬성”

동남아 출신보다 북미·서유럽 출신 선호

한국인 절반이상이 국제 결혼을 찬성하지만 동남아 출신보다는 북미 및 서유럽 출신과의 결혼에 더 호의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EBS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9세 이상 한국인 700명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국제결혼이민자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EBS는 이번 조사 결과를 21일 오후 9시20분 방송될 창사 8주년 특집 프로그램 '다가, 다문화, 우

리는 한국인'에서 방송한다.

먼저 한국인 700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전체의 54.7%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20.9%였고, '국적에 따라 다르다'는 유보적 응답은 22.3%였다. 배우자 국적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출신자일 경우 찬성 의견이 68.6%, 반대 의견은 28.7%였다. 배우자가 동남아 출신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찬성이 55%였지만 반대

도 43.5%로 높게 나왔다.

EBS는 "국제 결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명확한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국적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미와 서유럽 출신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67.3%)이 높았지만, 동남아 출신일 경우 반대 의견(60.6%)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73.1%로 부정적인 평가 25.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연남뉴스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 8월 11~14일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지관 스님)가 불교미술을 계승할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실시한다.

참가 희망자는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품사진과 제작 의도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오는 8월 11~14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국내·외 미발표작으로

한국 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불교미술을 계승하는 동시에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작품 제출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심사 결과는 8월 31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문의 02-2011-1772.

/이은미기자 emlee@

파라미타 청소년 캠프 내달 22일부터 광주·전남서

전국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가 오는 7월 22일부터 3박4일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한

여'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통놀이 체험, 유적답사,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파라미타 광주지부장 도재 스님은 "이번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캠프가 열약한 광주·전남 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수원 피오레 NEW CITY 2

분양가에 놀라대!
프리미엄에 반하다!
고품격인테리어에 감탄하다!

수원피오레의 8가지 특별 혜택!

- 1. 신중 선반 아파트
- 2. 100% 친환경 건축
- 3. 100% 친환경 건축
- 4. 100% 친환경 건축
- 5. 100% 친환경 건축
- 6. 100% 친환경 건축
- 7. 100% 친환경 건축
- 8. 100% 친환경 건축

신세계 홈쇼핑 특별상담

문의 367-3000

불행은 후회하는 순간 시작되며, 행복은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